

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

—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

박 선 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I. 들어가며
- II. 『東儷文』과 『儷林』 소재 인물 및 작품 개관
- III.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의 실제 양상
- IV. 나가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R1923541), 2020년 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科文選集인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 科表에서 典範으로 활용되었던 작품들의 양상과 그 실재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가들은 당시 科文을 학습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그 가운데 두 책에 비교적 많은 분량의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로는 李日躋(1683~1757)를 비롯한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상), 權綱(1708~미상), 尹志泰(1700~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은 그 비중으로 볼 때, 당대 응시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었으며 科文 학습의 과정에서 습작의 典範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東儷文』과 『儷林』에 모두 수록된 작가와 작품 가운데 李日躋(1683~1757)의 「韓信謝封淮陰侯」와 柳東賓(1720~미상)의 「漢群臣賀吹簫散楚兵」을 대상으로 科表의 형식적 특징을 살피고, 李圭象(1727~1797)이 『并世才彥錄』 「科文錄」에서 해당 작가와 작품에 대해 비평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작품들이 어떤 이유로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科表의 정식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구절에서는 정식을 탈피하여 변격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試題가 의거하고 있는 故事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주제를 잘 구현하였고,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사와 표현을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추구하였다. 이규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우와 평측의 운용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試題가 의거하고 있는 故事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주제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수사와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지가 작품의 중요한 평가요소였다. 이는 평측과 대우를 비롯한 형식적인 측면이 科表의 수

준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科表의 실제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당대에 科文에 대해 비평을 남긴 여러 문인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실례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필자는 이와 관계된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기에 추후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논의되었던 科文의 내용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요소를 아울러 논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東儷文』, 『儷林』, 科文選集, 과거수험서, 科表.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科文選集인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 科表에서 전범으로 여겨지던 작품들의 양상과 그 실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과문 연구는 과문 체제의 형식적 특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¹⁾에서 출발하여 한문학에 있어 과문의 역할에 주목하였고,²⁾ 과문의 역사와 변화 양상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으며, 그 후에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작자별, 작품별, 문헌별, 문체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³⁾ 과문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한문학 분야에서 생소하게 여겨졌던 과문의 각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과문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했는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문의 체제와 기본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고찰한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科文選集에 수록된 科表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조선 후기 과문의 실제와 그 일 단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대에 대표적 과문작가로 손꼽혔던 인물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162면.

2)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74~76면, 160~166면.

3) 황위주, 「科學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38집, 대동한문학회, 2013에 기준 과거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재론하지 않는다.

4)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는 기존 형식적 측면에 머물렀던 과문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내용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통해 조선 중기 이후로 평측이나 압운이 科文에서 주요 평가 요소가 되지 않았으며 '고전에의 몰입과 꺾진한 재현의 서술방식이 강조되었음을 밝혔다.

과거 수험용 교재로 활용된 科文選集은 과거 응시자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학습하였던 우수한 작품들을 選集한 책이므로, 당대의 과문 가운데 각 문체별로 典範이 되었던 작품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과문선집을 통해 당대 과문에서 대표적 작가로 손꼽혔던 인물들을 규명하고 그들의 실제 작품을 고찰하여 분석하는 일은 실제 과문의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일차적으로 과문선집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각 시대별 과문의 학습 과정 및 유통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과문선집에 수록된 실제 과문의 분석을 통해서도 駢儷體가 중심이 되는 과문의 형식적 특징과 아울러 내용적 측면에서도 한문 산문의 장르로서 과문이 지니는 문학성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科文選集에는 지금까지 과거 연구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인물과 그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과거 관련 자료들을 일람해 본 결과, 문학사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했던 작가나 문장가들이 당대에 과문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경우는 드물었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東儷文』과 『儷林』의 경우 주로 숙종~정조 연간에 명성이 있었던 과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⁵⁾ 두 자료에는 문학사에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정통 한문학 작가들의 작품이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그 보다는 科文분야에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었던 대표적인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대다수이며, 전체 작품 수량을 기준을 볼 때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한 작가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 시기 대표적인 科文選集이라 할 수 있는 『東儷文』과 『儷林』을 통해 그 실

5) 두 책 모두 筆寫記와 序跋文이 남아있지 않아 책이 필사된 정확한 시기와 필사자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하지만 수록된 인물들의 생몰연대 및 小科 혹은 大科에 급제한 시기로 미루어 볼 때, 1800년경 중후반에 활동했던 필사자가 주로 숙종~정조 대까지 명성이 있었던 科文작가들의 科儷를 엮어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체를 엿볼 수 있다.⁶⁾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인물들을 고찰하여 당대에 科表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들을 규명해 보려한다. 다음으로 당대에 科表에서 명성이 있었던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科表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작품들이 어떤 이유로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당대 인물들의 비평을 근거로 논해보려 한다.⁷⁾ 이러한 과정을 통해 科表에 있어 손꼽히는 작가들의 특장을 규명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로 형식적인 측면의 논의에만 머물렀던 과문의 내용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요소를 아울러 논할 수 있는 動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東儷文』과 『儷林』 소재 인물 및 작품 개관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숙종~정조 대에는 과거 시험 과목 중에 表와 箋의 출제 빈도와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자연스레 과거시험의 여타 문체보다 表箋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는 급제를 위해 表箋만을 습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⁸⁾ 응시자들은

6) 『儷林』에 수록된 인물 및 작품 개관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 후기 과문선집 『儷林』에 대하여-자료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50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에서 검토한 바 있다. 앞선 연구에서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의 개관 및 그 자료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수록된 작품의 연대가 비슷한 『儷林』과 『東儷文』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고찰하고, 실제 科表 작품을 분석하여 실제적 양상과 특징을 밝혀 보려 한다.

7) 과문에 대한 실제 비평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李圭象(1727~1797)의 『并世才彥錄』 「科文錄」에 당대에 저명했던 과문 작가들에 대한 작품과 그에 대한 비평이 남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 비평사, 1997.

科儷로 자주 출제되었던 表箋을 습작하는 과정에서 당대에 科儷에서 一家를 이룬 작가들의 작품들을 典範으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거 수험용 혹은 참고용 교재의 목적으로 科儷에서 명성을 떨친 작가들의 작품을 필사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거 시험 제도의 변화와 응시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숙종 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과문 선집들이 활발하게 편찬되었다.⁹⁾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東儷文』과 『儷林』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문선집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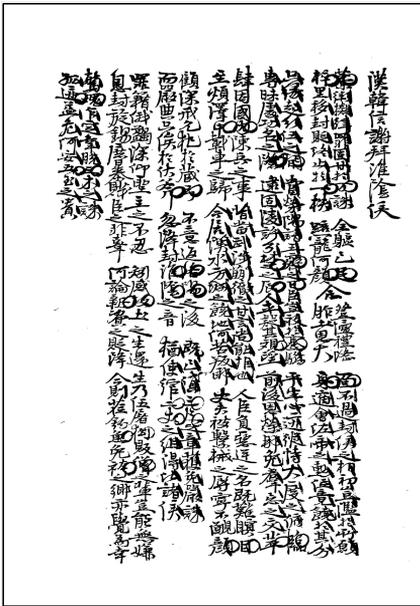
『東儷文』은 숙종·영조 연간의 인물들이 지은 科儷를 선집한 책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53명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습작한 科儷 1,221편을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과문선집이다.¹⁰⁾ 전체 10책의 필사본으로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儷林』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후반까지 활동했던 90명의 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제출했던 답안지와 그들이 習作하거나 私作한 科儷 709편을 모아서 인물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과문선집이다. 4책(元·亨·利·貞)의 필사본으로, 현재 미국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책에 수록된 각각의 작품들은 科表의 기본 구성인 虛頭-本文(初項-次項-回題-結頭)-結尾가 구분되도록 단락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응하는 두 행의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2구씩 묶어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흔히 科表에서 보이는 상투어들은 일부 생략된 형태로 필사되었다. 대체로 虛頭에서 사용되는 상투어인 ‘欽惟皇帝陛下/欽惟我后/恭惟我后’와 ‘伏念臣’을 생략하거나 줄여서 ‘欽’ 또는 ‘恭’, ‘念’ 한 글자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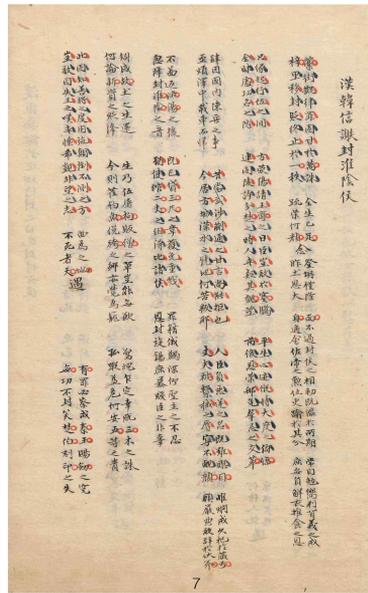
8)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120면 발췌요약.

9) 줄고, 위의 논문, 2020, 269면.

10) 『東儷文』은 수록 인물들을 먼저 연대별로 분류하고, 해당 작자의 작품들은 제목에 명시되어있는 시대에 따라 다시 시대별로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圖 1>. 『東儷文』 수록 李日躋의 「漢韓信謝拜淮陰侯」



<圖 2>. 『儷林』 수록 李日躋의 「韓信謝封淮陰侯」

표기하였으며, 結尾 부분에서는 상투어인 ‘茲蓋伏遇皇帝陛下/茲蓋伏遇主上殿下’를 줄여서 ‘遇’라고만 표기하고¹¹⁾ 표문을 마무리하는 구절로 表箋을 올리는 주체에 대해서 신하된 자로서서의 충성과 다짐을 고하는 겸사의 말은 모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擬)~表 또는 (擬)~箋의 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작품이 表箋制 가운데 어떤 문체에 속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東儷文』과 『儷林』뿐만 아니라 인물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여타 과문선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11) 이처럼 科表에 사용되는 상투어들을 줄이거나 생략한 채로 기재하는 방식은 『東儷文』과 『儷林』뿐만 아니라 과문선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식이다.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98쪽에 따르면 ‘과문 표전의 抄錄의 경우 虛頭 제 3구 앞에 놓이는 惟皇帝陛下, 欽惟我后, 恭惟我后 등의 호칭을 줄여서 ‘欽’ 또는 ‘念’ 한 글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자마저 생략한 채로 轉寫한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하였다.

보편적인 형식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당시 응시자들이 科儷를 학습할 때에는 ‘科儷’의 범주에 속하는 表箋制의 문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체제에 맞게 학습하지 않고, 전적으로 對偶의 표현 기법을 익히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응시자들의 科文 학습에 있어 주안점이 되었던 부분은 試題에서 출제되는 문체의 체제보다는 각 문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對偶를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구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품의 일부 구절들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批點이 있다. 이는 『東儷文』과 『儷林』의 편찬자 혹은 소장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을 습작의 전범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三·五’, ‘陰·陽’, ‘天·地’와 같이 名詞對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붉은색의 ‘○’ 비점을 찍고, 특히 주목해야 할 聯에서는 붉은색 ‘·’ 비점과 푸른색 ‘ˊ’ 비점을 교대로 찍었다. 이러한 비점들은 『東儷文』과 『儷林』뿐만 아니라 당대 과문 선집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응시자들이 과문선집을 과거 참고서로 활용할 때에는 科文의 형식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염두해두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다.

다음으로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인물과 작품을 살펴도록 하겠다. 『東儷文』에는 모두 53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儷林』에는 모두 90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들이 당시 과문을 학습하던 응시자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고 그들의 작품이 응시자들의 학습 전범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중에 두 책에 모두 선별되어 작품이 실려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자면 이 작가들과 해당 작품이 응시자들 사이에서 더 명성이 있었고 학습 전범으로서의 비중이 더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작가들의 현황과 수록된 해당 작품 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東儷文』과 『儷林』 소재 중복 수록 인물 및 작품 현황

	인 물(생몰년도)	『東儷文』 소재 작품 수	『儷林』 소재 작품 수
1	李成中(1706~1760)	5	1
2	俞彦國(생몰년 미상)	1	1
3	趙顯命(1690~1752)	1	1
4	李燮元(생몰년 미상)	1	2
5	趙榮國(1698~1760)	2	2
6	李基德(1701~미상)	2	3
7	南泰階(생몰년 미상)	3	4
8	趙尙慶(생몰년 미상)	5	4
9	李思觀(1705~1776)	5	5
10	金尙星(1703~1755)	4	7
11	李福源(1719~1792)	11	7
12	李喆輔(1691~1775)	10	7
13	宋眞明(1688~1738)	2	7
14	李遂大(1675~1709)	2	8
15	李壽沆(1685~미상)	3	8
16	李眞望(1672~1737)	2	8
17	吳光運(1689~1745)	3	10
18	尹憲柱(1661~1729)	1	10
19	金啓煥(생몰년 미상)	2	11
20	柳 逸(생몰년 미상)	2	12
21	李巨源(1685~1755)	7	14
22	林錫憲(1698~미상)	10	14
23	尹鳳朝(1680~1761)	2	15
24	宋成明(1674~미상)	5	16
25	趙鎭世(1689~미상)	3	16
26	睦天任(1673~1730)	5	17
27	趙泰億(1675~1728)	2	17
28	尹聖時(1672~1730)	3	19
29	吳命新(생몰년 미상)	7	21

30	崔致誠(생몰년 미상)	2	21
31	李匡德(1690~1748)	16	22
32	尹 淳(1680~1741)	3	22
33	林象德(1683~1719)	10	29
34	趙文命(1680~1732)	7	34
35	金有慶(1669~1748)	6	39
36	許 靄(생몰년 미상)	6	39
37	尹志泰(1700~미상)	63	77
38	李日躋(1683~1757)	28	86
39	柳東賓(1720~미상) ¹²⁾	148	92
40	權 綱(1708~미상)	31	170
41	朴道翔(1728~미상)	172	233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가들은 총 41명이다.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가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자면 당대에 문장가로 명성이 있었고 科文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과 문장가로서는 이름을 날리지 않았지만 科文에서만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로 나눌 수 있다. 당대 문장가로 명성이 있었고 科文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로는 尹鳳朝(1680~1761), 趙泰億(1675~1728), 李匡德(1690~1748), 尹淳(1680~1741), 趙文命(1680~1732)이 있으며, 科文에서만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로는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상)¹³⁾, 權綱(1708~미상), 尹志泰(1700~미상)가 있다. 물론 작품의 수량이 그 작가의 작품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두 책에

12) 이후 ‘柳國信’으로 개명하였다.

13) 과문에서만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인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상), 權綱(1708~미상), 尹志泰(1700~미상)의 경우에는 문집이 남아있지 않고 생애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어서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료나 필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科文과 관련한 언급을 통해 그들의 문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李日躋(1683~1757),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상)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졸고, 2020, 272~276면 참조.

수록된 작품의 수량과 그 비중을 기준으로 보자면, 두 과문선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이일제를 비롯한 유동빈, 박도상, 권경, 윤지태와 같이 科文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이었다. 문장가로 科文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의 작품은 적게는 1편, 많게는 30여편이 수록된 반면, 科文에서만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의 작품은 적게는 20여편, 많게는 200여편 가량이 수록되어 있어 작품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는 科文에서 손꼽혔던 대표적인 작가들이 분명 존재하였으며, 이들의 작품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작품이 필사되어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科文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東儷文』과 『儷林』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품이 상당수였는데, 이처럼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품들은 당대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과문 학습의 과정에서 습작의 전범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Ⅲ.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의 실제 양상

본 장에서는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李日躋(1683~1757)와 柳東賓(1720~미상)의 작품을 통해서 科表의 실체를 검토하려 한다.¹⁴⁾ 이들은 『東儷文』과 『儷林』에 비교적 많은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로, 당대 科文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李圭象(1727~1797)은 『并世才彥錄』 「科文錄」에서 이일제와 유동빈이 창작한 科表의 일부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작품에 대한 간략한 비평을 덧붙였다. 당대에 이일제와 유동빈이 과문에서 손꼽혔던 대표적 작가임을 고려할 때,¹⁵⁾ 이규상의 이러한 비평은 이규상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대

14)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품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儷林』에 수록된 작품이 더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儷林』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로 형식 및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문인들의 보편적인 견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아래에서는 이규상의 비평을 근거로 이일제와 유동빈의 작품을 대상으로 科表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함께 고찰해 보려 한다.

먼저 이일제의 「韓信이 淮陰侯에 봉해진 것에 사례하는 내용으로 의 작하라[韓信謝封淮陰侯]」를 살펴보자.¹⁶⁾ 이 試題는 『史記』 「淮陰侯傳」에 의거하고 있다. 韓信은 漢高祖(劉邦)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楚王에 봉해졌지만, 이후 한고조에게 모반을 꾀한다는 의심을 받아 낙양까지 압송되었다가 사면되면서 자신의 고향인 淮陰을 다스리는 제후로 지위가 강등되었다는 고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 「韓信謝封淮陰侯」

① 虛頭

01 藁街擬律罪固甘於萬誅

고가에서 형벌을 집행한다면
죄는 진실로 만 번 죽어도 달게 여길
것인데,

梓里移封貶終止於一秩

고향 땅으로 옮겨 봉해주어
결국 한 등급이 좌천되는데 그쳤네.

02 全生已足

생명을 온전히 보전한 것으로 이미 충
분하니

疏榮何顏

특별한 충애를 무슨 면목으로 받겠습
니까.

念

생각하건대

03 登埤禮隆

登埤의 예우가 융숭하고

15) 沈魯崇, 『自著實記』, “表箋學爲林象德李日躋之作, 以下不論. 雖如尹志泰, 朴道翔者, 亦無取焉. 惟柳東賓可以展林李之後. 以此作爲四六之學之程, 積費力有倍於詩文卒不得有成, 此爲甚恨也.” 번역 및 표점은 심노승 저, 안대회 김보성의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를 참조하였다.

16) 이 작품은 『儷林』책2의 7면에 수록되어 있으며, 『東儷文』에는 3책 71면에 ‘漢韓信謝拜淮陰侯’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작품 간에는 글자 출입이 있다.

胙土恩大
04 面不過封侯之相初既濫於所期
身適會佐帝之勳位更踰於其分

胙土의 은혜가 큼니다.
관상은 제후에 봉해지는데 불과하니
애초에 기대한 바에 넘치고
몸은 황제를 보좌하는 공훈에 적합하
니 지위는 재차 분수에 지나칩니다.
늘 이익을 향하여 의리를 배반하는 경
계를 스스로 면려하였고,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건네준 은혜
를 거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05 常自勉嚮利背義之戒
庶無負解衣推食之恩

㉑ 本文

㉑-1 初項

06 只緣起行伍之間
全昧處功名之際

병졸의 대열에서 몸을 일으켰기에
공명을 이를 즈음에 처신에 어두웠습
니다.

07 方榮陽請王齊之日臣豈敢於蹇驕
逮固陵許分楚之時人乎疑其觀望

榮陽에 계실 때 제왕으로 봉해달라고
요청하던 날에 신이 어찌 감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固陵에서 초나라를 떼어주시기로 허락
하셨을 때 사람들은 관망하기만 한다
고 의심하였습니다.

08 平生心迹縱持大度之俯臨
前後恩榮那免群忌之交萃

평소에 마음으로 비록 큰 뜻으로
굽어 살피주시기를 믿었으나
전후로 받은 은혜와 영화에 어찌 여러
사람의 시기가 모이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㉑-2 次項

09 肆因國內陳兵之事
至煩澤中載車而歸

이에 나라 안에 군대를 사열하는 일로
인하여
번거롭게도 운몽택에서 수레에 실려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 10 昔當武涉蒯通之甘言尙能拒也
 今居方城漢水之饒地何苦叛耶
 옛날 武涉과 蒯通의 감언을 듣고도 오
 히려 거절하였는데,
 지금 漢水와 方城의 기름진 땅에 처하
 여 어찌 괴롭게 배반을 하겠습니까.
- 11 人臣負惡逆之名旣難瞑目
 丈夫被繫械之辱寧不視顏
 남의 신하가 되어 ‘악역’이란 죄명을
 얻었으니 이미 눈을 감기 어렵고,
 장부로서 형틀을 쓰고 포박당하는 욕
 을 당하였으니 어찌 얼굴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 12 惟爛戒久犯於藏弓
 顧嚴典敢辭於伏斧
 분명한 경계를 생각하니 사냥이 끝나
 면 활을 넣어둔다는 상황을 범한지가
 오래이고,
 엄정한 법을 생각하니 죽임을 당한다
 한들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②-3 回題

- 13 不圖返洛陽之後
 忽降封淮陰之音
 뜻밖에도 낙양으로 잡혀 돌아온 뒤에
 문득 한 등급을 내려 회음후에 봉한다
 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 14 旣已貸三尺之章獲免重戮
 猶使縉二丈之組得比諸侯
 이윽고 관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형
 을 면하였고,
 오히려 2길의 인끈을 차고 제후의 반
 열에 이르렀습니다.
- 15 罪籍俄鑄深仰聖主之不忍
 恩封旋錫庶暴賤臣之非辜
 죄인의 명부에서 갑자기 빠지니 聖主
 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깊이 우
 러르고,
 은혜로운 分封을 갑자기 내리시어 미
 천한 신하의 결백을 드러내셨습니다.

②-4 結頭

- 16 矧感故土之生還
 하물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감격스러우니,

何論新資之貶降

어찌 새로 제수된 등급이 낮다고 따지겠습니까

17 生乃伍屠狗販繒之輩豈能無歎

태어나 개백정과 비단 장수들과 같은 만열에 있는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마는

今則蒞釣魚俛袴之鄉亦覺爲寵

지금에는 물고기를 잡고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던 고향을 다스리는 것 역시 총애인 줄을 알겠습니다.

18 驚魂乍定幸脫三木之誅

놀란 가슴 잠깐 진정되자 다행히 刑具의 죽임에서 벗어났고,

孤蹤益危何安五等之貴

외로운 자취 더욱 위태로우니 어찌 5등급에 속하는 귀한 侯의 지위에 편안하겠습니까.

③ 結尾

19 此固知善將之度用施顛倒不測之方

여기에서 장수를 잘 거느리는 도량은 위태롭고 예측하기 힘든 방편에 쓴다는 것을 진실로 알았으니,

豈敢因失王之嘆或懷希覬非望之志

어찌 감히 왕의 지위를 잃었다는 탄식으로 인해 혹여라도 분수에 넘치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20 曲爲之地

곡진히 위하는 것은 땅이고,

不死者天

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遇

21 有罪必察戒秦王賜劔之寃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살펴야하니

無功不封笑楚伯刻印之失

秦王이 검을 내린 원통함을 경계하고

공이 없으면 分封하지 않으니

楚伯(項羽)이 인장을 새기고 주지 않은

실수를 비웃네

이일제의 「韓信謝封淮陰侯」는 총 21句로, 표문의 기본 구성인 虛頭-本文(初項-次項-回題-結頭)-結尾의 형식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 상응하는 두 행은 글자 수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육변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科表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평측법인 가위렴[鈇簾]을 따랐다.

虛頭: 誅(○), 秩(●), 足(●), 顏(○), 隆(○), 大(●), 期(○), 分(●), 戒(●), 恩(○)
 本文 初項: 間(○), 際(●), 驢(○), 望(●), 臨(○), 萃(●)
 次項: 事(●), 歸(○), 也(●), 取(○), 目(●), 顏(○), 弓(○), 斧(●)
 回題: 後(●), 音(○), 戮(●), 侯(○), 忍(●), 辜(○)
 結頭: 還(○), 降(●), 歎(●), 寵(●), 誅(○), 貴(●)
 結尾: 方(○), 志(●), 地(●), 天(○), 冤(○), 失(●)

허두에서 ‘念’ 위의 구절은 매구마다 평측을 교환하되, ‘念’ 이하의 구절인 제 4구처럼 가위렴을 따르지 않은 구절도 있었다. 본문은 가능한한 정해진 평측법을 맞추는 것이 조선 후기 과표의 정식이었지만, 이일제의 표문에서는 정해진 평측법을 따르지 않은 구절도 있다. 초항은 평-측, 평-측, 평-측, 차항은 측-평, 측-평, 측-평, 평-측, 회제는 측-평, 측-평, 측-평, 결두는 평-측, 측-측, 평-측의 형태로 구를 맺고 있다. 회제는 정식대로라면 평-측, 평-측, 평-측이 되어야 하지만, 회제 이전 차항의 마지막 구에서 평측을 바꾸어 주제를 환기시키고, 회제에서도 평측을 바꾸었다. 본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단구 1구와 장구 2구, 즉 단장장 3구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것이 정식이다.¹⁷⁾ 하지만 이일제의 표문에서는 차항에서 단구 1구가 더 추가되어 4구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일제의 「韓信謝封淮陰侯」는 과표의 정식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구절에서는 정식을 탈피하여 형식적인 면에서 변격을 시도한 작품으로 보인다.

17) 이상욱, 위의 논문, 2015, 145면

다음으로 작품의 전체적 구성과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이일제는 試題에 따라 표문의 화자를 韓信으로 설정하고 있다. 허두에서는 역모로 몰아 자신을 죽이지 않고 淮陰侯에 봉해주어 생명을 보전하게 해준 한고조의 처분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배경이 된 사건과 함께 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의 초항과 차항에서는 한신이 낙양까지 압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 심경을 간곡하게 토로하였다. 전반부에는 미천한 자신에게 옷과 음식을 건네주고 齊王에 봉해주었던 한고조의 큰 은혜를 저버릴 수 없음을 말하였고, 후반부에는 자신은 절대로 모반을 피하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지만 이미 반역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에 자신을 사형에 처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회제와 결두에서는 한고조의 관대한 처분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고 지위가 한 등급 강등되는 것으로 그친 자신의 심경을 말하였다. 결미에서는 자신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준 한고조의 덕을 칭송하며 표문을 올리게 된 까닭을 간략하게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규상은 『并世才彥錄』 「科文錄」에서 이일제를 두고 ‘科表에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문장이 능란하고 예리하여 科表 중에서 가장 능수로 손꼽혔다¹⁸⁾라고 칭찬해마지 않았고, 이 작품의 제 6구 ‘병졸의 대열에서 몸을 일으켰기에 공명을 이룰 즈음에 처신에 어두웠습니다[只緣起行伍之間, 全昧處功名之際]와 제 10구 ‘옛날 武涉과 蒯通的 감언을 듣고도 오히려 거절하였는데, 지금 漢水와 方城의 기름진 땅에 처하여 어찌 괴롭게 배반을 하겠습니까[昔當武涉蒯通之甘言尙能拒也, 今居方城漢水之饒地何苦叛耶]’를 소개하며 ‘비록 韓信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¹⁹⁾라고 高評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규상은 이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우의 강구와 평측의 운

18) 李圭象, 「科文錄」, 『并世才彥錄』, “李參判日躋, 字君敬, 表才異常, 其才全在於人事上, 形容人所欲言, 反勝其人之口. 文亦尖利自有, 科表中第一能手.”

19) 李圭象, 「科文錄」, 『并世才彥錄』, “雖使信言, 不過如此.”

용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試題가 의거하고 있는 고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주제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수사와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지 등을 작품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평측과 대우를 비롯한 형식적인 측면이 과표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유동빈의 「통소를 불어 초나라 군사들을 무너뜨린 일에 대해 한나라의 신하들이 하례하는 내용으로 의작하라[漢群臣賀吹簫散楚兵]」를 살펴보자.²⁰⁾

■ 「漢群臣賀吹簫散楚兵」

① 虛頭

01 誰能撓楚權乎幄籌方運

누가 초나라의 권력을 뒤흔들었는가.
군막 안에서의 계책이 움직였네.

客有吹洞簫者敵壘俄空

어떤 객이 통소를 불자,
적의 진영이 갑자기 텅비었네.

02 是乃淒耳之音

귀에 들리는 처량한 소리에

無不流涕而去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네.

恭

03 大度鬪智

큰 계책은 지혜를 다투고

謀士出奇

모사는 기이한 계책을 내네

20) 이 작품은 『儷林』책3의 95면에 수록되어 있으며, 『東儷文』에는 제 6책의 33면에 「漢項羽至固陵張良吹簫散楚兵」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작품 간에는 글자 출입이 있다. 『병세제언록』 「과문록」에는 南胄寬(1724~미상)이 해당 시제가 출제된 月課에서 장원으로 뽑혔으며, 그의 작품이 명작으로 알려졌다(近日文官南胄寬, 題漢賀吹簫散楚兵爲壯元於月課爲名作)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본 작품이 유동빈이 남주관과 함께 月課를 쳤을 때 제출한 작품인지, 아니면 남주관의 작품이 유명해지자 해당 試題로 유동빈이 습작한 작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儷林』책 3에는 남주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본 작품과 비교대상이 될만하다.

04 我武維揚既見孔將軍在左費將軍在右 우리의 무공을 드날려 이미 孔 장군은
 왼쪽에 있고
 費 장군은 오른쪽에 있음을 이미 보았고,
 大統將集何論漢鴻溝以西楚鴻溝以東 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鴻溝 서쪽
 은 漢나라 소유이고
 鴻溝 동쪽은 楚나라 소유임을 어찌 따
 지겠는가.

㉑ 本文

㉑-1 初項

05 顧彼項羽之垂亡 돌아보건대 저 항우는 곧 망할 것인데,
 尙多爪牙之爲用 여전히 발톱과 이빨처럼 부리는 장수
 가 많네.

06 大小七十戰之卒困縱挫拔山之威 크고 작은 칠십번의 전투에
 마침내 곤경에 처해 비록 산을 뽑을
 만한 위세 꺾였지만,
 子弟八千人之相隨, 猶有如林之衆 함께 따르던 江東의 8천명의 자제는
 여전히 수풀처럼 많네.

07 荊江漁唱誰退東吳之兵 荊州의 江夏에서 어부들 노래 불렀으
 니 누가 東吳의 군사를 격퇴하였는가.
 晉曠琴聲尙憂南風之競 晉나라 師曠은 거문고를 연주하여
 오히려 남풍과 다투는 것을 걱정하였
 네

㉑-2 次項

08 屬值鷄山明月之夜 마침 鷄鳴山에는 밤에 밝은 달이 떠올
 랐으니
 殊異鴻門朝日之時 鴻門에서 조희 받던 때와는 전혀 달랐
 네

09 枕戈吳兒夢驚八年之風雨 창을 베고 있는 오나라 아이는
 꿈속에서 8년 동안의 풍우에 놀라고

- 滿營楚月秋生九郡之山河
 10 雖伯王蓋世之雄尙不禁慷慨下泣
 況士卒懷土之念安得無謳歌思歸
- 진영에 초나라 달빛 가득한데,
 가을에 초나라 9郡의 산하가 비치네
 비록 伯王으로 세상을 뒤덮는 영웅 되
 었지만 오히려 울분에 흘러내리는 눈
 물 금할 수 없으니,
 더구나 병졸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
 음 있으니 어찌 초나라 소리에 돌아갈
 생각 하지 않겠는가.

2-3 回題

- 11 俄然王帳謀臣
 吹送碧簫哀韻
 12 商聲數闕半雜烏鴉之嘶
 楚天三更喚起熊虎之士
 13 餘音不絕宛帶楚水吳山之愁
 一軍皆驚孰無代馬越鳥之戀
- 갑자기 왕의 장막 안에 있던 謀臣이
 옥피리로 슬픈 곡조를 연주하네.
 슬픈 노래 몇 곡조에 오추마의 울음소
 리 반 쯤 섞이고,
 삼경 무렵 초나라의 곰과 호랑이처럼
 용맹한 장사들 불러 일으켰네.
 남은 곡조 끊이지 않아 楚吳 지역의
 강과 산에 대한 근심 완연하고
 전군이 모두 놀라 누군들 代馬와 越鳥
 처럼 고향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2-4 結頭

- 14 果山上鳴鳴竟夕
 而營中落落如星
 15 一聲剪斷陣雲兵氣蕭瑟
 千軍踏向曉月去路蒼茫
 16 不啻雍門之琴左右皆泣
 殆同易水之筑壯士亦悲
- 산 위에서 저녁 내내 울부짖다가
 군영 안의 병사들은 흩어져 얼마남지
 않았네
 한 곡조 노래 끊어지자 전쟁의 기운
 시들해지고
 많은 병졸 길나서니 새벽달이 떠나는
 길을 아득히 비추네
 雍門子周의 거문고 연주보다 더 슬퍼
 좌우에서 모두 울먹이고
 易水에서 筑을 연주할 때와 거의 같아

장사들 역시 슬퍼하네.

③ 結尾

- | | |
|--|--|
| <p>17 誰知秦樓引鳳之音

反成楚幕飛鳥之績</p> | <p>秦樓에서 봉황을 부르는 곡조를 연주
한 줄 누가 알겠는가.
도리어 초나라 군영에서 적을 무너트
리는 공적을 이루었네</p> |
| <p>18 蕭條半夜猴冠之伯圖空

經營幾年蜂起之健兒安在</p> | <p>쓸쓸한 한밤중에 갓을 쓴 원숭이의 霸
業은 잠간사이에 부질없는 일이 되었
으니,
천하를 도모한 지 몇 년 사이에 붕기
했던 군센 장정들은 어디에 있는가.</p> |
| <p>19 金壇大將莫詫百戰之功勳

玉簫寒聲已收全楚之天地</p> | <p>화려한 단상 위의 장수는 수많은 전투
의 공훈을 자랑할 수 없으니,
쓸쓸한 옥뿡소 곡조는 이미 초나라 전
역을 거두었네.</p> |
| <p>20 斷腸一曲
解體三軍
念</p> | <p>창자를 끊어내는 한 곡조에
3군이 뿔뿔히 흩어졌네.</p> |

유동빈의 「漢群臣賀吹簫散楚兵」는 총 20句로, 표문의 기본 구성인 虛頭-本文(初項-次項-回題-結頭)-結尾의 형식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 이일제의 科表와 마찬가지로 사륙변려체를 기반으로 가위렴[鈇簾]을 따랐다.

- 虛頭: 運(●), 空(○), 音(○), 去(●), 智(●), 奇(○), 右(●), 東(○)
 本文 初項: 亡(○), 用(●), 威(○), 衆(●), 兵(○), 競(●)
 次項: 夜(●), 時(○), 雨(●), 河(○), 泣(●), 歸(○)
 回題: 臣(○), 韻(●), 嘶(○), 士(●), 愁(○), 戀(●)
 結頭: 夕(●), 星(○), 瑟(●), 茫(○), 泣(●), 悲(○)

結尾: 音(○), 績(●), 空(○), 在(●), 勲(○), 地(●), 曲(●), 軍(○)

허두에서 ‘念’ 위의 구절은 매구 평측을 교환하되, ‘念’ 이하의 구절에서는 가위럼을 따르지 않았다. 본문의 초항은 평-측, 평-측, 평-측, 차항은 측-평, 측-평, 측-평, 회제는 평-측, 평-측, 평-측, 결두는 측-평, 측-평, 측-평의 형태로 구를 맺고 있다. 다만 정식에서 결미는 ‘念’위에 장구 1구와 단구 1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동빈의 과표에는 단구 1구와 장구 1구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동빈의 「漢群臣賀吹簫散楚兵」 역시 과표의 정식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구절에서는 정식을 탈피하여 형식적인 면에서 변격을 시도한 작품이라 하겠다.

유동빈은 試題에 따라 표문의 화자를 한나라의 신하들로 설정하고, 주로 『史記』 「高祖本紀」와 「項羽本紀」의 고사를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를 개괄하는 허두에서는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옥피리를 불어 초나라 군사들의 전의를 잃게 만든 張良의 뛰어난 계책 덕분에 초나라 군대가 와해되었음을 말하였다. 본문의 초항과 차항에서는 ‘力拔山氣蓋世’의 영웅호걸로 일컬어졌지만 오랜 기간의 전투로 기세가 꺾일대로 꺾인 항우의 모습과 전투에 지쳐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사들의 간절한 심경을 그렸다. 이어 표문의 주제를 환기하는 회제는 장량이 옥피리로 슬픈 곡조를 연주하자 오추마가 울고 초나라의 군사들이 그 곡조에 동요하는 모습을 그려내어 초나라 군대가 흩어지려 하는 상황을 그렸다. 결두에서는 결국 슬픈 옥피리 곡조에 동요된 초나라 군사들이 뿔뿔이 고향으로 떠나 항우의 군대가 와해되는 모습을 그렸다. 결미에서는 천하의 제패를 꿈꾸며 기세등등했던 항우와 초나라 군대를 장량이 옥피리 한 곡조로 무너뜨린 일을 치하하며 항우와 초나라 군사에 대한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규상은 『병세제언록』에서 유동빈의 과표 가운데 ‘옹희의 덕화가 저절로 드러나니 조정의 의론 따르고 어기는 것과 무관하고 존몰의 감회

바야흐로 깊으니 앞 말의 득실 논할 게 무엇인가[雍熙之化自彰, 非緣廷議之從違. 存沒之感方深, 何論前言之得失]라는 구절을 소개하며 ‘유동빈의 과려체는 자골어가 많다’²¹⁾고 평가하였다. 해당 구절이 어떠한 작품의 일부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試題의 핵심을 잘 간파하여 날카롭게 정곡을 찌르는 듯한 표현을 구사한 점을 높이 평가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유동빈의 「漢群臣賀吹簫散楚兵」를 살펴보면, 결미부분에서 ‘쓸쓸한 한밤 중에 갓을 쓴 원숭이의 霸業은 잠깐사이에 부질없는 일이 되었으니 천하를 도모한 지 몇 년 사이에 붕기했던 군센 장정들은 어디에 있는가[蕭條半夜猴冠之伯圖倏空, 經營幾年蜂起之健兒安在]’라고 한 부분은 자골어를 활용하여 영웅호걸로 일컬어지던 항우를 갓 쓴 원숭이에 비유하여 폄하하고 기세등등했던 초나라 군대가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구절이라 하겠다. 또 ‘화려한 단상 위의 장수는 수많은 전투의 공훈을 자랑할 수 없으니, 쓸쓸한 옥통소 곡조는 이미 초나라 전역을 거두었네[金壇大將莫詫百戰之功勳 玉簫寒聲已收全楚之天地]’라고 한 부분 역시 자골어를 잘 구사하여 이전의 전투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장량의 옥피리 한 곡조 계락에 한나라에 무너져 결국 패망에 이른 항우와 초나라의 모습을 여실하게 잘 드러내었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편찬된 科文選集인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 科表에서 전범으로 여겨지던 작품들의 양상과 그 실체를 분석해보았다.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작가들은 당시 科文을 학습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그 가운데 두 책에 비교적 많은 분량의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로는 李日躋(1683~1757)를 비롯한 柳東賓(1720~미상), 朴道翔(1728~미

21) 李圭象, 「科文錄」, 『并世才彥錄』, “文官柳東賓儷體, 多刺骨語”

상), 權綱(1708~미상), 尹志泰(1700~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은 그 비중으로 볼 때 당대 응시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었으며, 과문 학습의 과정에서 습작의 전범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東儷文』과 『儷林』에 모두 수록된 작가와 작품 가운데 李日躋(1683~1757)의 「韓信謝封淮陰侯」와 柳東賓(1720~미상)의 「漢群臣賀吹簫散楚兵」를 대상으로 과표의 형식적 특징을 살피고 이규상의 비평을 근거로 해당 작품들이 어떤 이유로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科表의 정식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구절에서는 정식을 탈피하여 변격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試題가 의거하고 있는 고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주제를 잘 구현하였고,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사와 표현을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추구하였다. 이규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우와 평측의 운용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試題가 의거하고 있는 고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주제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수사와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지가 작품의 중요한 평가요소였다. 이는 평측과 대우를 비롯한 형식적인 측면이 科表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과표의 실제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당대에 과문에 대해 비평을 남긴 여러 문인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실례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필자는 이와 관계된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기에 추후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논의되었던 과문의 내용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요소를 아울러 논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논문접수일: 20.08.31 / 심사완료일: 20.09.20 / 게재확정일: 20.09.29.

<참고문헌>

1. 원전자료

『儷林』 4책, National Library of Korea - Harvard Yenching Library Korean rare book digitization project[

990079866680203941]

『東儷文』 1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4^0083]

李世燦 編, 『韓山世稿』,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古3647-175-255-1-2]

2.. 논저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심노승 저, 안대희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74~76면, 160~166면.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 비평사, 1997.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박선이, 「조선 후기 과문선집 『儷林』에 대하여-자료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50집,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20.

李秉燮, 「科文의 形式考(Ⅱ)-表策을 중심으로」, 『釜山漢文學』 2집, 부산한문학회, 1986.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황위주, 「科擧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38집, 대동한문학회, 2013.

3. DB 및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KORCIS (<http://www.nl.go.kr/korcis>)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장서각(<http://jsg.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하버드대 소장본 온라인 목록 HOLLIS(<http://hollis.harvard.edu>)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y of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tandard of Assessment in Dongryeomun and Ryeorim / Park, Seon-y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s and reality of works that were considered examples in the Standard of Assessment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h writers and works included in the Question Collection for Gwageo Examination, *Dongryeomun* and *Ryeorim*,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writers listed in *Dongryeomun* and *Ryeorim* were famous among examinees learning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at the time, and among them, two books contained relatively large amounts of works, including the works of Lee Il-Je (1683-1757), Yoo Dong-Bin(1720~?), Park Don-Sang(1728~?), Kwon Gyeong(1708~unknown), and Yoon Ji-Tae(1700~?). In terms of their weight, the works of authors in both books were frequently talked about among examinees at the time, and in the course of the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study, it can be guessed that they were works that were considered examples of studies. Focusing on these facts, the standard of assessment was conducted for 「Hansinsabong hoeumhu」 by Lee Il-Je (1683-1757) and 「Hangunsinhachuisosanchobyeong」 by Yoo Dong-Bin (1720-?) among the authors and works included in both *Dongryeomun* and *Ryeorim*. Based on the criticism mentioned by Lee Gyu-Sang (1727~1797) in *Byungsejeeonrok* 「Gwamunrok」, the form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nd for what reason these works were highly evaluated at the time.

Both of these works followed the formal standard of assessment in terms of formality, but in certain passages, they were able to find traces of attempting to

* Korea University Ph.D Candidate / dudu0218@naver.com

change from the formalities. In terms of content, the subject was well implemented by utilizing the idiom based on the Title of Examination in the right place, and the literary nature of the work was pursued through rhetoric and expression that reveal the artist's personality. From Lee Gyu-Sang's point of view, how well the idiom based on the Title of Examination was grasped and utilized in terms of contents rather than formal aspects such as consideration of antithesis and management of tonal patterns, and appropriate investigation. Whether or not they were using expressions was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of the work.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practical case showing that formal aspects, including tonal patterns and antithesis, which were previously considered as the main evaluation elements of the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did not act as an absolute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level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and analyzing the reality and its aspects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and ha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present various data of various writers who criticized the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as an example.

Since the author reviewed related materials, it is expected that if these materials are continuously discovered in the future, it will be a starting point to discuss both the contents and literary elements of Questions for Gwageo Examination, which remained only in formal discussions.

Key words: Dongryeomun, Ryeorim, Question Collection for Gwageo Examination, Test Book for Gwageo Examination, Standard of assessment.